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간 범죄자의 표상: 실제 국내 강간 범죄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Public Image of Rapists and its Comparison with their Characteristics on the National Statistics

박지선*, 박인선**

국립경찰대학 행정학과*, 서울대 심리학과 대학원**

Ji-Sun Park(jsirispark@hotmail.com)*, In-Sun Park(yolly123@hanmail.net)**

요약

강간 범죄는 강력 범죄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결과 강간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러나 점차 증가하는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하여, 과연 우리가 강간 범죄와 범죄자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통념이 왜곡되지 않은 것인지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강간 범죄와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관념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피해자의 이차적 피해와 가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처벌, 그 결과로 증대되는 사회적 두려움과 악순환을 고려할 때,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는 강간 범죄와 가해자에 대한 표상과 실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강간 범죄와 가해자의 특성이 어떤 면에서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를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과 경찰이 지니고 있는 강간 범죄자의 표상과 실제 발생한 강간 범죄의 차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은 실제 강간 범죄 발생 특성과 강간 범죄자의 모습과는 다른 표상을 관념적으로 생성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인과 경찰은 강간 범죄자가 실제보다 사회적으로 악조건에 처해 있으며 범행을 좀처럼 뉘우치지 않고 교정이 쉽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등 전반적으로 강간 범죄자에 대하여 실제와 다른 왜곡된 표상을 형성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강간 사건 발생에서 검거까지 소요된 시간을 과대추정한 것으로 보아 검거 기관을 불신하는 경향 역시 나타났다.

■ 중심어 : | 강간 범죄 |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 | 강간 통념 | 범죄자 표상 | 범죄자 배경 특성 |

Abstract

We often find that we, as a social group, share stereotypes of criminals. For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stereotypes of rapists, and examined if they match their characteristics on the national crime statistics in Korea. Collecting data from 82 college students and 91 police officers, we compared stereotypes about rapist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reported on the national crime statistics. As a result, we found that both college students and police officers have distorted stereotypes of rapists which are not consistent with their characteristics. More specifically, both college students and police officers believed that rapists came from broken families and that they were likely to have more previous criminal convictions than they actually did. In addition, both college students and police officers believed that rapists tended to recidivate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e.g. 1-3 months, which is much shorter than the time that actually took for them to recidivate. Finally,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made.

■ keyword : | Rape | Fear of Sexual Offense | Rape Myth | Image of a Rapist | Offender Background Characteristics |

I. 서론

강간은 피해자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영혼의 살인’으로도 일컬어지는 강력 범죄이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297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강간은 폭행 또는 위협 등의 수단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것을 말하며[1], 이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을 요한다. 2009년에 살인, 강도, 방화 등을 포함한 25,791건의 강력 범죄 중 강간 범죄가 과반수인 16,156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44.3건, 한 시간에 1.8건의 강간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간 범죄 발생 건수를 인구 100,000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한 수치는 32로 살인, 강도, 방화 등의 강력 범죄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2]. 또한 사이버경찰청에서 공개한 강간 범죄 발생·검거현황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6,000여건이 발생하였고 2006년부터는 매년 1,000여건씩 증가하여 2009년에는 10,000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공식적인 발표 자료 외에도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시시각각 인면수심의 강간 범죄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있다.

그 결과, 강간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에 만연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특히 여성의 경우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통계청에서 2008년에 실시한 연령층 및 성별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은 청소년(70.4%), 성인층(45.7%), 고령층(20.1%) 등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 청소년(19.0%), 성인층(20.4%), 고령층(14.9%) 보다 높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최근에 인크루트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연이은 성범죄 발생으로 귀가시간이 빨라졌다는 직장인이 51.1%에 달했으며 전기충격기나 고음경보기 등 호신용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는 직장인이 16.7%, 앞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사람도 50%에 달해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두려움은 강간 통념과 결합되어 단순한 개인의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발전할 소지가 있어 문제가 된다. 강간 통념이란 강간 행위와 강간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편향되고 고정관념적인 신념을 의미한다[3]. ‘여성의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강간이 유발되는 것이다’는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은 성에 굶주린 정신이상자이다’는 가해자에 대한 대표적인 강간 통념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강간 통념은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이성애에 대한 적대감, 대인 폭력 수용도 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3]. 즉, 가해자는 자신의 성적인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에 왜곡된 강간 통념을 이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일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보다 강간 통념 수용도가 더 높았으며[4], 성범죄 가해자들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강간 피해자에게 더 큰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또한 강간 통념은 사건과 관련한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반인들에게도 만연하기 때문에, 강간 통념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이차적 피해를 양산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강간 통념이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행 사건 지각 사이의 매개변인 역할을 하여, 실제로 강간 통념 수용도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쳐 성폭행 사건을 강간으로 규정하는 범위에 있어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서,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폭행 또는 협박’과 관련하여 행위의 강제성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강간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보다 보수적이고 엄격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강간 통념을 수용하는 정도가 크고, 그 결과 사건 발생의 책임을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로 돌려 해당 사건이 강간죄에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6]. 덧붙여, 강간 통념은 적대적 성차별 태도와 피해자 비난 사이의 매개 변인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적대적 성차별 태도

를 갖고 있을수록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고, 따라서 성폭력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로 그 책임을 더 많이 돌리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7].

성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부정하고, 강간 범죄를 피해자가 유발한 것이라고 비난하게 되는 기제의 저변에는 이렇게 강간 통념과 관련한 폭넓은 인지적 과정이 존재한다[8].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강간 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특히 사법적인 권력을 가진 수사관이나 법관이 이러한 인식을 가질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강간 범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언론에 등장하는 강간 사건에 관한 기사를 비롯하여 강간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에서, 언론 매체 모두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일단 독자의 눈길을 끄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강간 범죄에 대해 자극적이거나 왜곡된 표상을 형성하기 쉽다.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사한 선행 연구에 있어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교육 수준이 낮은 남성이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더 저지른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9], 해당 연구에서 범죄자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평가 차원이 범죄자의 성별과 교육 수준, 지역 등 7개에 그쳐 강간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범죄 발생의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있어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점차 증가하는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과연 우리가 강간 범죄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왜곡되지 않은 표상을 형성하고 있는지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강간 통념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피해자의 이차적 피해와 가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처벌, 결과적으로 증대되는 사회적 두려움과 악순환을 고려했을 때,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는 강간 범죄와 가해자에 대한 표상과 실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강간 범죄와 가해자의 특성이 어떤 면에서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를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경찰이 지니고 있는 강간 범죄자의 표상과 공식 통계상에 나타난 국내의 실제 강간 범

죄의 차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II.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권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 재학생 82명(남 32명, 여 50명)과 경찰 91명(남 89명, 여 2명)이었다. 대학생의 나이는 최저 20세부터 최고 53세 사이였고, 경찰의 나이는 최저 28세부터 최고 57세 사이였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각각 23.8세($SD = 4.91$)와 43.1세($SD = 7.77$)였다. 성별은 대학생의 경우 남자가 39%, 여자가 61%로 나타난 반면, 경찰의 경우에는 남자가 97.8%, 여자가 2.2%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본 설문에 참여한 경찰의 근무 개월 수를 살펴보면, 최소 80개월부터 최장 394개월까지로 다양하게 분포했으며, 평균은 223개월($SD = 95.54$)로 약 10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기간 중에서도 수사 관련 보직에서의 근무 개월 수를 살펴본 결과, 수사 관련 보직에서는 전혀 근무해 본 적이 없는 사람부터 최장 300개월까지로 다양하게 분포했으며, 평균은 56개월($SD = 56.34$)로 약 10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과 경찰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는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의 가장 최신판인 「범죄분석 2010」에 나타난 강간 범죄자와 관련된 공식 통계상의 수치와 비교되었다. 「범죄분석 2010」은 2009년 한 해 동안 전국의 경찰과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기록한 범죄통계원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2. 분석 내용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주요 변인들은 크게 강간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 발생 특성이라는 두 가지의 범주로 구분된다. 우선 강간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범죄자의 연령, 학력, 직업, 혼인 상태, 부모 관계, 경제적 생활 정도, 전과 횟수, 재범 기간, 약물 중독 여부, 범행 당시 정신 상태 등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범죄 발생 특성은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총

강간 범죄 건수와 발생 계절, 범행 요일과 장소, 범죄자 자백 여부와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걸리는 기간 등으로 구성된다.

III. 결과

1. 범죄자 배경 특성

[표 1]과 [표 2]는 공식 통계상에 나타난 우리나라 강간 범죄자의 특성과 함께, 대학생과 경찰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강간 범죄자의 표상을 나타낸다. 각각의 항목에 있어서 공식통계 상의 결과를 대학생과 경찰 각각에게서 얻은 결과와 t-test를 통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강간 범죄자의 직업에 있어서 무직이라는 항목의 경우, 대학생이 생각하는 비율(46.3%)과 공식 통계상에서의 비율(26.3%)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이어서 경찰이 생각하는 비율(55.1%)과 공식 통계 상에서의 비율(26.3%)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여 표 안에 그 유의미도를 표시한 것이다.

먼저 공식 통계상에 나타난 우리나라 강간 범죄자의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면[표 1], 18세 이하의 소년범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있고, 가장 많은 연령대는 41~50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과 경찰 모두 26~30세 사이인 강간 범죄자를 가장 전형적으로 떠올렸으며, 이는 공식 통계에서 나타난 수치보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과다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공식 통계 13.9%, 대학생 37.8%, 경찰 38.4%). 반면 공식 통계상으로 가장 많은 연령대인 41~50세 사이에 대해서는 대학생과 경찰 모두 유의미하게 과소추정했으며(공식 통계 22.2%, 대학생 12.1%, 경찰 7.7%), 18세 이하의 소년범들과 51세 이상의 고연령 강간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존재하는 범죄자들에 비해 이에 대한 표상을 떠올리는 사람은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공식 통계상에 나타난 우리나라 강간 범죄자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표 1], 임시직 및 피고용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생과 경찰 모두 무직인 강간 범죄자를 가장 전형적으로 떠올렸으며, 이는 공식 통계에서 나타난 수치

보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과다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공식 통계 26.3%, 대학생 46.3%, 경찰 55.1%). 반면 공식 통계상으로 가장 많은 임시직 및 피고용자에 대해서는 경찰의 경우 유의미하게 과소추정했으며(공식 통계 39.1%, 대학생 39.0%, 경찰 25.8%), 자영업에 종사하는 강간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존재하는 범죄자들에 비해 이에 대한 표상을 떠올리는 사람은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공식 통계 16.4%, 대학생 2.4%, 경찰 5.6%).

표 1. 강간 범죄자의 배경 특성: 공식 통계와 일반인의 표상 비교

항목	공식통계		대학생		경찰		
연령	13,761	100.0%	82	%	91	%	
소년	18세 이하	1,574	11.4	1	1.2**	0	0.0
	19~25	1,690	12.3	10	12.1	12	13.2
	26~30	1,906	13.9	31	37.8**	35	38.4**
	31~35	1,699	12.4	17	20.8	25	27.5**
	36~40	1,800	13.1	13	15.9	8	8.8
	41~50	3,060	22.2	10	12.1**	7	7.7**
	51~60	1,407	10.2	0	0.0	4	4.4**
	61~70	488	3.6	0	0.0	0	0.0
71세 이상	137	1.0	0	0.0	0	0.0	
직업	13,232	100.0%	82	%	89	%	
자영업	2,168	16.4	2	2.4**	5	5.6**	
임시직, 피고용자	5,171	39.1	32	39.0	23	25.8**	
전문직	393	2.97	3	3.7	9	10.1*	
기타	2,023	15.3	7	8.5*	3	3.4**	
무직	3,478	26.3	38	46.3**	49	55.1**	
교육 정도	9,685	100.0%	82	%	91	%	
무학	95	0.98	1	1.2	1	1.1	
초등학교	594	6.1	7	8.5	2	2.2*	
중학교	1,405	14.5	13	15.9	17	18.7	
고등학교	4,733	48.9	37	45.1	54	59.3*	
대학교	2,712	28.0	21	25.6	15	16.5**	
대학원 이상	146	1.5	3	3.7	2	2.2	
생활 정도	10,471	100.0%	82	%	91	%	
하류층	6,699	63.98	56	68.3	64	70.3	
중산층	3,642	34.8	25	30.5	27	29.7	
상류층	130	1.2	1	1.2	0	0.0	
혼인 상태	10,400	100.0%	82	%	91	%	
미혼	5,613	53.97	64	78.0**	64	70.3**	
기혼	3,486	33.5	3	3.7**	22	24.2*	
동거	281	2.7	6	7.3	1	1.1	
이혼	889	8.6	9	11.0	4	4.4	
사별	131	1.3	0	0.0	0	0.0	
부모 관계	5,613	100.0%	82	%	91	%	
부모 모두 있음	4,115	73.3	25	30.5**	16	17.6**	
계부모	31	0.6	15	18.3**	12	13.2**	
편부편모	1,001	17.8	34	41.5**	54	59.3**	
부모 모두 없음	466	8.3	8	9.8	9	9.9	

**p<.01, *p<.05

다음으로 강간 범죄자의 교육 정도를 살펴보면[표 1], 여러 대학생들이 떠올린 전형적 강간 범죄자의 학력은 그 빈도에 있어 실제 우리나라 강간 범죄자의 학력 분포와 매우 동일하게 나타난 반면, 경찰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중퇴·졸업자를 유의미하게 과다추정하고 대학교 재학·중퇴·졸업자를 과소추정하여 실제보다 학력에 대해 더 낮게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강간 범죄자의 생활 정도에 있어서는 공식 통계에 나타난 실제 범죄자들의 생활 수준 분포와 일반인들의 표상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한 강간 범죄자의 혼인 상태에 관해서는[표 1], 대학생과 경찰 모두 미혼인 강간 범죄자를 가장 전형적으로 떠올렸으며, 이는 공식 통계에서 나타난 수치보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과다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공식 통계 53.97%, 대학생 78.0%, 경찰 70.3%). 반면 기혼인 강간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학생과 경찰 모두 유의미하게 과소추정했으며(공식 통계 33.5%, 대학생 3.7%, 경찰 24.2%), 특히 대학생들에 있어서 기혼인 강간 범죄자에 대한 표상을 떠올리는 사람은 극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미혼인 강간 범죄자들만을 대상으로 부모 관계를 조사했을 때 공식 통계상에서는 부모가 모두 존재하였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대학생과 경찰 모두 이에 대해서는 유의미하게 과소추정한 반면(공식 통계 73.3%, 대학생 30.5%, 경찰 17.6%), 계부모(공식 통계 0.6%, 대학생 18.3%, 경찰 13.2%)나 편부 혹은 편모 가정(공식 통계 17.8%, 대학생 41.5%, 경찰 59.3%)에 대해서는 과다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강간 범죄자의 배경 특성: 공식 통계와 일반인의 표상 비교

항목	공식통계		대학생		경찰	
	전과 횟수	10,981 100.0%	81	%	90	%
없음	4,139	37.7	16	19.8**	10	11.1**
1회	1,584	14.4	7	8.6	7	7.8*
2회	1,096	9.98	19	23.5**	18	20.0*
3회	871	7.9	25	30.9**	28	31.1**
4회	628	5.7	4	4.9	3	3.3
5회	494	4.5	5	6.2	17	18.9**
6회	383	3.5	2	2.5	2	2.2
7회	293	2.7	2	2.5	1	1.1
8회	262	2.4	0	0.0	1	1.1
9회 이상	1,231	11.2	1	1.2**	3	3.3**

동종 재범	1,107	100.0%	81	%	91	%
1개월 이내	59	5.3	16	19.8**	10	11.0
3개월 이내	72	6.5	34	42.0**	30	33.0**
6개월 이내	67	6.1	22	27.2**	33	36.3**
1년 이내	263	23.8	6	7.4**	13	14.3*
2년 이내	163	14.7	1	1.2**	3	3.3**
3년 이내	152	13.7	1	1.2**	1	1.1**
3년 초과	331	29.9	1	1.2**	1	1.1**
이중 재범	5,714	100.0%	81	%	90	%
1개월 이내	225	3.9	10	12.3*	3	3.3
3개월 이내	304	5.3	29	35.8**	19	21.1**
6개월 이내	321	5.6	17	21.0**	26	28.9**
1년 이내	1,105	19.3	12	14.8	25	27.8
2년 이내	731	12.8	5	6.2*	9	10.0
3년 이내	654	11.5	3	3.7**	5	5.6*
3년 초과	2,374	41.6	5	6.2**	3	3.3**
마약류 등 상용 여부	10,535	100.0%	81	%	91	%
마약류	11	0.1	5	6.2*	0	0.0
분드 등 환각물질	3	0.03	2	2.5	27	29.7**
알콜	1,170	11.1	45	55.6**	28	30.8**
해당 무	9,351	88.8	29	35.8**	36	39.6**
범행시 정신 상태	10,323	100.0%	81	%	91	%
정상	6,016	58.3	28	34.6**	47	51.6
주취	4,148	40.2	42	51.9*	32	35.2
정신장애	159	1.5	11	13.6**	12	13.2**
피해자와 관계	10,461	100.0%	82	%	91	%
모르는 사람	7,022	67.1	46	56.1*	53	58.2
친족	315	3.0	1	1.2	0	0.0
애인	364	3.5	0	0.0	0	0.0
이웃	311	2.97	22	26.8**	19	20.9**
친구	284	2.7	0	0.0	0	0.0
직장 동료 등	424	4.1	5	6.1	1	1.1**
기타 지인	965	9.2	6	7.3	16	17.6*
기타	776	7.4	2	2.4**	2	2.2**

**p<.01, *p<.05

다음으로 공식 통계상에 나타난 우리나라 강간 범죄자의 전과 분포를 살펴보면[표 2], 전과가 없는 범죄자가 37.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전과 1범(14.4%), 그리고 전과 9범 이상(11.2%)의 순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과 경찰 모두 전과 3범인 강간 범죄자를 가장 전형적으로 떠올렸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과 2범인 강간 범죄자를 가장 전형적으로 떠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식 통계상으로 가장 많은 전과 없음에 대해서는 대학생과 경찰 모두 유의미하게 과소추정했으며(공식 통계 37.7%, 대학생 19.8%, 경찰 11.1%), 오히려 전과 9범 이상인 강간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범죄자들에 비해 이에 대한 표상을 떠올리는 사람은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공식 통계

11.2%, 대학생 1.2%, 경찰 3.3%).

다음으로 공식 통계상에 나타난 우리나라 강간 범죄자의 재범 기간을 살펴보면[표 2], 동종과 이종 모두 출소한 뒤 최소 3년이 지나간 시점에서 재범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생은 동종과 이종 모두 1-3개월 이내에 재범을 하는 강간 범죄자를, 경찰은 동종과 이종 모두 3-6개월 이내에 재범을 하는 강간 범죄자를 가장 전형적으로 떠올렸으며, 이는 공식 통계에서 나타난 수치보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과다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식 통계상으로 가장 많은 3년 초과 재범자에 대해서는 대학생과 경찰 모두 동종과 이종을 막론하고 유의미하게 과소추정하여 강간범들이 재범에까지 이르는 기간을 실제보다 훨씬 더 짧게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마약 상용 여부에 있어[표 2], 공식 통계상으로는 마약류나 알콜 모두 중독에 이르는 수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으나 대학생과 경찰 모두 이에 대해 과소추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공식 통계 88.8%, 대학생 35.8%, 경찰 39.6%), 대학생과 경찰 모두 알콜 중독인 강간 범죄자를 실제보다 과다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대학생의 경우 범행 당시에 주취 상태인 강간 범죄자를 전형적으로 떠올리는 사람이 가장 많고(51.9%), 이는 공식 통계상의 수치(40.2%)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범행 시 정상인 범죄자를 떠올리는 사람은 실제보다 적게 나타났다. 덧붙여, 정신 장애를 갖고 있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학생과 경찰 모두 실제보다 과다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식 통계 1.5%, 대학생 13.6%, 경찰 13.2%).

또한 강간 범죄자-피해자간 관계에 관해서는[표 2], 공식 통계상으로 서로 모르는 관계가 67.1%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과 경찰 모두 서로 모르는 관계를 가장 전형적으로 떠올렸다(각각 56.1%, 58.2%). 특기할만한 점은 공식 통계상에서 범죄자가 피해자가 서로 이웃인 관계는 2.97%에 불과한 반면, 대학생과 경찰 모두 이를 두 번째로 많이 떠올렸다는 점이다(각각 26.8%, 20.9%).

2. 범죄 발생 특성

[표 3]은 공식 통계상에 나타난 우리나라 실제 강간 범죄 발생의 특성과 함께, 대학생과 경찰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강간 범죄 발생 특성을 나타낸다.

먼저 공식 통계상에 나타난 우리나라 강간 범죄 계절별 발생 분포를 살펴보면[표 3], 큰 차이 없이 각 계절마다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있고, 특히 여름과 가을에 비교적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과 경찰 모두 과반수 이상이 여름을 가장 전형적으로 떠올렸으며, 이는 공식 통계에서 나타난 수치보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과다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공식 통계 29.2%, 대학생 58.0%, 경찰 82.0%).

또한 범죄 발생 시간에 관해서는[표 3], 대학생과 경찰 모두 밤 시간대(20:00-03:59)를 가장 전형적으로 떠올렸으며, 이는 공식 통계에서 나타난 수치보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과다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공식 통계 44.8%, 대학생 81.7%, 경찰 68.9%). 반면 오전(09:00-11:59)이나 오후(12:00-17:59) 시간대에 발생하는 강간 범죄에 대한 표상을 떠올리는 사람은 대학생과 경찰 모두 극히 적고, 공식 통계상의 수치보다 유의미하게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공식 통계상에 나타난 우리나라 강간 범죄 요일별 발생 분포를 살펴보면[표 3], 특정한 요일에 집중됨이 없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과 경찰 모두 금요일을 전형적으로 떠올린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공식 통계에서 나타난 수치보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과다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공식 통계 14.5%, 대학생 43.9%, 경찰 45.5%).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금요일과 토요일을 전형적으로 떠올린 사람이 가장 많고 이는 실제 발생 빈도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반면, 나머지 요일에 발생하는 범죄를 떠올리는 사람들은 극히 적고, 이는 실제 발생 빈도보다 모두 유의미하게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범죄 발생 장소 분포를 살펴보면[표 3], 대학생과 경찰 모두 아파트나 주택을 가장 전형적으로 떠올렸으며, 이는 공식 통계에서 나타난 수치보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과다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공식 통계 27.5%, 대학생 47.6%, 경찰 59.6%). 반면 숙박업소나 목욕탕에서 발생하는 강간 범죄에 대해서는

대학생과 경찰 모두 유의미하게 과소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식 통계 15.0%, 대학생 6.1%, 경찰 1.1%).

표 3. 강간 범죄 발생 특성: 공식 통계와 일반인의 표상 비교

항목	공식통계		대학생		경찰	
계절별 발생	16,156	100.0%	81	%	89	%
봄(3월~5월)	3,547	21.8	6	7.4**	9	10.1**
여름(6월~8월)	4,743	29.2	47	58.0**	73	82.0**
가을(9월~11월)	4,685	28.8	12	14.8**	4	4.5**
겨울(12월~2월)	3,181	19.6	16	19.8	3	3.4**
범죄 발생 시간	12,620	100.0%	82	%	90	%
새벽(04:00~06:59)	1,816	14.4	7	8.5	12	13.3
아침(07:00~08:59)	980	7.8	0	0.0	0	0.0
오전(09:00~11:59)	1,036	8.2	1	1.2**	2	2.2**
오후(12:00~17:59)	2,233	17.7	3	3.7**	7	7.8**
저녁(18:00~19:59)	902	7.2	4	4.9	7	7.8
밤(20:00~03:59)	5,653	44.8	67	81.7**	62	68.9**
범행 발생 요일	16,036	100.0%	81	%	88	%
일	2,395	14.9	5	6.1**	2	2.3**
월	2,145	13.4	1	1.2**	7	8.0*
화	2,231	13.9	2	2.4**	10	11.4
수	2,286	14.3	5	6.1**	9	10.2
목	2,281	14.2	5	6.1**	10	11.4
금	2,317	14.5	36	43.9**	40	45.5**
토	2,381	14.9	27	32.9**	10	11.4
범죄 발생 장소	16,156	100.0%	82	%	89	%
아파트주택	4,444	27.5	39	47.6**	53	59.6**
도로노상	2,798	17.3	20	24.4	20	22.5
상점	385	2.4	2	2.4	1	1.1
숙박업소·목욕탕	2,425	15.0	5	6.1**	1	1.1**
유흥업소	1,094	6.8	4	4.9	2	2.2**
사무실	276	1.7	0	0.0	1	1.1
지하철 등 교통수단	1,163	7.2	0	0.0	0	0.0
학교	138	0.9	1	1.2	1	1.1
유원지	175	1.1	1	1.2	3	3.4
기타	3,258	20.2	10	12.2*	7	7.9**
발생부터 검거까지 기간	14,902	100.0%	82	%	90	%
1일 이내	8,315	55.8	5	6.1**	4	4.4**
2~3일 이내	601	4.0	11	13.4*	12	13.3*
4~10일 이내	1,115	7.5	13	15.9*	22	24.4**
11일~1개월 이내	1,535	10.3	15	18.3	11	12.2
1~3개월 이내	1,394	9.4	19	23.2**	21	23.3**
3~6개월 이내	661	4.4	10	12.2*	13	14.4**
6~12개월 이내	516	3.5	4	4.9	5	5.6
1년 초과	765	5.1	5	6.1	2	2.2
자백 여부	10,551	100.0%	81	%	91	%
자백	4,927	46.7	8	9.9**	12	13.2**
일부자백	3,737	35.4	34	42.0	42	46.2*
부인	1,860	17.6	29	35.8**	35	38.5**
묵비	27	0.3	10	12.3**	2	2.2

**p<.01, *p<.05

다음으로 발생에서 검거까지 걸리는 기간에 있어 [표 3], 공식 통계상으로는 사건 발생 1일 이내에 검거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나 대학생과 경찰 모두 이에 대해 과소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식 통계 55.8%, 대학생 6.1%, 경찰 4.4%). 주목할만한 점은 대학생과 경찰 모두 검거 기간을 1-3개월 정도로 추정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식 통계상으로 사건 발생 1개월 이내에 검거하는 경우가 대략 80%에 달하는 것과는 크게 다르게 나타난 점이다.

또한 범죄자의 자백 여부와 관련하여[표 3], 공식 통계상으로는 범죄자가 자백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나 대학생과 경찰 모두 이에 대해 과소추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공식 통계 46.7%, 대학생 9.9%, 경찰 13.2%), 대학생과 경찰 모두 범행을 부인하는 강간 범죄자를 실제보다 유의미하게 과대추정한 것(공식 통계 17.6%, 대학생 35.8%, 경찰 38.5%)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앞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제 강간 범죄자의 전형적인 특성과 경찰 또는 일반인이 지니고 있는 표상을 종합하여 보면, 먼저 공식 통계상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강간 범죄자의 특성은 부모님이 모두 계시고 배우자가 있는 가정의 40대 남성으로 임시직을 가지고 있거나 피고용자로 일하고 있다.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마약이나 술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정상 상태로, 낯선 사람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 초범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대부분 사건 발생 1일 내에 검거되고 재범을 하게 된다면 처벌 직후가 아닌 3년 후에 저지르게 된다. 검거 시에도 자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에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강간 범죄자의 표상을 살펴보면, 편부 또는 편모 가정에서 자라난, 배우자도 직업도 없는 20대 후반의 남성이다.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으며 범행 당시 주취 상태로 낯선 사람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 검거 된 후에는 좀처럼 범행을 자백하지 않으며 처벌 후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의 빠른 시간 안에 재범을 저지르고 결과적으로 전과 3범 이상이 된다. 경찰이 형성한 표상도 이와 유사하나, 다만 가해자의 알코올 중독

은 해당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세 가지 표상을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일반인과 경찰은 강간 범죄자에 대하여 실제와 다른 왜곡된 표상을 형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인과 경찰은 강간 범죄자가 실제보다 사회적으로 악조건에 처해 있으며 범행을 좀처럼 누우치지 않고 교정이 쉽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발생에서 검거까지 소요된 시간을 과대추정한 것으로 보아 검거하는 기관을 불신하는 경향 역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실제 강간 범죄자는 소년범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40대 연령층이 가장 많이 나타난 데 비해, 일반인과 경찰은 20대 후반의 범죄자를 가장 쉽게 떠올렸다. 이와 같은 통념은 소년, 또는 노인은 강간 범죄의 가해자가 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으로 이어져 강간의 적용 범위를 좁히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개인의 관념상 강간의 적용 범위가 좁아질수록 성적인 폭력 행위를 부정하고 피해자의 책임을 과대적용하게 된다는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본 연구는 강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에 착안하여 일반인과 경찰이 형성하고 있는 강간 범죄자와 강간 범죄에 대한 표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제까지의 선행 연구들이 단순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간 통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측정하거나[6][10-12], 혹은 극히 제한된 범주에 있어서 범죄자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알아보는 데 그쳤다면[9], 본 연구는 강간 범죄자와 범죄 발생 특성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과 아울러 직접 강간 범죄를 다루는 형사 사법 기관인 경찰의 인식을 함께 살펴보고 이를 공식 통계와 폭넓은 차원에서 비교한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 결과, 개개인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획득한 강간 범죄에 대한 정보를 통해 일반인과 경찰 모두 실제 강간 범죄와 강간 범죄자의 모습과는 다른 표상을 관념적으로 생성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우리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가부장적인 가치와 이중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왜곡된 성역할에서 기인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그리고

자극적으로 보도되는 강간범죄 관련 기사로 인해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서울시 여성들이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한 정책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늦은 시간에 안전 귀가를 위해 야간 경비를 철저히 한다'가 50.9%로 1위, '가정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가 28.2%로 2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외에도 일반인들에게 있어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는 교육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간이라는 범죄의 만연성과 심각성, 그리고 왜곡된 신념이 사회적으로 지니는 과급력을 고려하였을 때 그 중요성은 더해진다고 할 수 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간 통념 수용도를 조사하였을 때 국내외 국외 연구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강간 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13]. 즉, 나이가 들수록 바람직한 성교육 등을 통해 왜곡된 강간 통념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지만, 성인이 되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어릴 때 형성된 강간에 대한 인식이 개개인의 강간 통념 수용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14]에서 볼 수 있듯이, 잘못된 통념을 체계적으로 수정하고 올바른 성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널리 보급하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아울러 강간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형성되는 다양한 경로 가운데 강간 범죄를 자극적이고 폭력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형성하는 미디어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10], 현상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노력과 함께 사회 전반적 의식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권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 재학생 82명과 경찰 91명으로부터 얻은 설문 조사에 바탕을 둔 것으로, 표본의 수가 매우 적고 그 대표성에 있어 커다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있어 필연적 제한점을 가지므로, 향후에는 보다 많고 다양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체계적인 표집 절차를 거쳐

결론의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사람들이 강간 범죄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표상을 공식 통계상에 나타난 특성들과 비교하였는데, 여러 범죄들 가운데에서도 강간 범죄는 신고율이 비교적 낮은 범죄로 알려져 있으며[15], 특히 친족 간의 성폭력과 같이 범죄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가 특수한 경우에는 사건이 공식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이렇게 암수 범죄의 비율이 높은 강간 범죄에 있어 공식 통계에 나타난 수치들은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17],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데 있어 주의를 요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왜곡된 신념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일반인들이 강간 범죄자뿐만 아니라 강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표상을 형성하고 있고, 이는 실제 피해자들의 특성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강간 범죄자와 피해자에 대해 사람들이 무지하고 왜곡된 표상을 형성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가해자들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아야 하는지와 강간 피해자들에게 강간 범죄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등 강간 범죄와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가치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강간 범죄자와 피해자들에 대해 사람들이 무지하고 왜곡된 표상을 형성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크기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또 이는 주변에 성범죄 피해 경험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지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 사법기관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경찰 집단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향후에는 강간사범을 다루는 검찰이나 법원, 교정 기관 등 다양한 형사 사법 시스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2] 대검찰청, 범죄분석, 대검찰청, 2010.

[3] M. Burt,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38, No.2, pp.217-230, 1980.

[4] 신의진, 오태성, 이영준, 송원영, 이경숙, 유은희, "성범죄 청소년의 정신사회적 특징 : 일반범죄 청소년과의 비교,"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지, 제9권, 제1호, pp.39-52, 2005.

[5] S. Ben-David and O. Schneider, "Rape perceptions, gender role attitudes, and victim-perpetrator acquaintance,"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Vol.55, pp.385-402, 2005.

[6] 고혜리, 남녀 대학생의 성폭행 사건 지각 차이에 대한 분석 : 성역할 고정관념과 강간통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7] 윤병해, 고재홍,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차이: 강간통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1권, 제1호, pp.1-19, 2006.

[8] Z. D. Peterson and C. L. Mullenhard, "Was it rape? The function of women's rape myth acceptance and definitions of sex in labeling their own experiences,"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Vol.51, pp.129-144, 2004.

[9] 박희찬, 김혜숙,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처벌 관련 판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4권, 제2호, pp.27-49, 2010.

[10] 이건호, 강해자, "강간통념 수용도, 성역할 태도 및 음란물 접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1권, 제3호, pp.23-40, 2005.

[11] S. S. Hinck and R. W. Thomas, "Rape Myth Acceptance in College Students: How Far Have We Come,"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Vol.40, Nos.9-10, pp.815-832, 1999.

[12] R. Iconis, "Rape Myth Acceptance In college Students: A Literature Review," Contemporary Issues In Education Research, Vol.1, No.2, pp.47-51, 2008.

[13] V. N. Anderson, D. Simpson-Taylor, and D. J.

Herrmann, "Gender, age, and rape-supportive rules," Sex Roles, Vol.50, Nos.1-2, pp.77-90, 2004.

- [14] 유재훈, *청소년의 강간통념, 성역할 태도 및 비행 행동간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15] 김은경, 최수형, 박정선,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16] 강은영,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체계 점검*, 보건복지가족부, 2009.
- [17] 전영실,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저 자 소 개

박 지 선(Ji-Sun Park)

정회원



- 2001년 2월 :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심리학과(복수전공·문학사)
 - 2003년 12월 : University of Liverpool(범죄수사심리학 석사)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심리학석사)
 - 2009년 2월 :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CUNY(범죄심리학박사)
 - 2010년 2월 ~ 현재 :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살인, 성범죄

박 인 선(In-Sun Park)

준회원



- 2010년 3월 : 국립경찰대학 법학과(법학사)
 - 2010년 3월 ~ 현재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 <관심분야> : 부적 정서 조절, 범죄